



이면서 십사일반의 정신으로 인색은 금물이라 생각하고 불참자 없는 그리고 무임승차자라는 오명을 배제시키는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집유일원화와 검사공영화 그리고 수급조절한다는 낙농진흥회 발족에 관해 매우 좋고 바람직한 낙농정책이라고 환영일색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전엑스포호텔에서 가졌던 전국 낙농지도자 대회에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가공업무의 전국화로 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질문을 어느 낙농지도자가 할 때 적극 공감하면서 마음속으로 매우 환영하였습니다.

당국에서는 낙농진흥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제도적으로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낙농가와 유업체는 자율적으로 스스로 참여하도록 한다고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당국은 어려운 문제는 접어 두고 어떠한 의도에서 나온 정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독 유가공업체만을 대상으로 납유농가와 그 단체에 다소의 보조금을 줬을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협회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낙농가의 입장은 전혀 고

려를 안한 권위만을 앞세운 악법일 것이고 반농민적이라 할 수 있으며 물리적인 방법을 앞세운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는 말입니다. 낙농지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철회될 때까지 성토해야 합니다.

희망차고 벅찬 2001년에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일련의 낙농현안이 모두가 완전히 해결돼서 낙농가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는 낙농복지사회 국가가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2001년 새해 아침에 복 많이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필자연락처: 031-958-2586)

## 낙농이 명실공히 농업의 꽃으로 활짝 피는 한해가 되었으면



이 종 영  
충남도지회장

모든 유제품은 소비자의 구매형태에 따르기 위해서 낙농가, 유업체 그리고 정부 등 낙농관련자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와 뜻이 모아져야만 되겠다.

낙농육우산업이 명실공히 이 땅에서 농업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낙농육우인이 모두 다 하나되어 병 들고 시들어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애국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2001년에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인 아침인가 하면 벌써 어둠이 깔리는 저녁이고, 첫추의 시

작인 월요일인가 하면 주말인 토요일이 된다.  
매월 월초인가 하니 월말이

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연초인가 했더니 연말이 된다. 이것이 바로 정신없이 낙농육우산업 현장



을 누비며 땀흘려 일하는 전국의 낙농육우인들일 것이다. 그렇게도 떠들썩 하며 맞이했던 2000년도 그러한 속에서 저물어 갔고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로 맞이해야 하는 희망찬 2001년의 찬란한 태양이 떠오른다.

이제 우리 낙농육우인의 바람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2000년 3월에 전국의 축산농가를 불안에 떨게 했던 구제역 같은 악성 전염병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을 위해서 국도, 지방도, 마을 안길, 농장주변을 철저히 소독해 차단 방역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금도 지역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법적 전염병인 우결핵, 우부루세라가 근절되어야만 되겠고, 금년부터는 한우사육농가에도 우결핵, 우부루세라 검진을 실시하여 소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무서운 질병이 아주 멀리 사라져야만 되겠다.

이를 위해 각 지역 축산위생시험소의 수의직공무원을 증원해 모든 가축 질병이 사전 차단되어 지난해와 같이 구제역과 동후 축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겠다.

둘째, 금년부터 실시되는 생우수입 및 축산물 전체의 완전 개방과 함께 유제품의 수입 또한 급속히 증가될 것이니 유제품의 소비 증가를 위해 우유의

본질을 알리는 낙농자조금사업이 지난해 낙농가 80% 동참에서 끝났지만 금년에는 100% 참여가 되어야 하며 금년부터는 유가공업체도 자사의 특정제품의 선전광고에만 연연하지 말고 연간 매출액의 일부를 낙농가와 함께 낙농자조금을 조성해 줘야만 되겠다.

모든 유제품은 소비자의 구매 형태에 따르기 위해서 낙농가, 유업체 그리고 정부 등 낙농관련자 모두의 적극적인 의지와 뜻이 모아져야만 되겠다.

셋째,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료작물포구입자금이 지원되기 바라며 정부는 쌀 전업농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 농지구입자금을 쌀개방 후의 우리 농촌과 농업을 생각해서 낙농가의 조사료 생산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 주고 고가의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비의 보조 및 면세 유류지원을 종전과 같이 해줘야만 된다. 이 나라 경제가 언제 농민의 기계 구입비 보조 및 면세유류 지원으로 기울어진 것은 아니지 않은가.

넷째, 도시근교 낙농가의 축산분뇨처리법 위반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속위주 행정에 축산농가만 멍들게 하지 말고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대책을 바라며 축산농가도

내 목장의 지저분한 분뇨처리상태로 우수소비자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어 환경친화적 낙농현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모든 낙농정책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낙농산업 현장에 맞도록 낙농육우협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갖기 바란다.

강압적으로 한 농정치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며 집유일원화 사업도 낙농가 자율선택에 맡겨야지 사전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실적을 위해 서두르는 것은 모순된 농정이 아니라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전체 낙농가의 집유일원화보다는 경쟁자가 일부 있어야 하며 이 경쟁은 우리가 세상을 사는 한 최고의 지선(至善)이 아닌 가 싶다.

이상 다섯가지야 말로 2001년의 전국 낙농육우인의 바람일 것이며 이것이 선행되어 낙농육우산업이 명실공히 이 땅에서 농업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낙농육우인이 모두 다 하나되어 병들고 시들어 가는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애국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2001년에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필자연락처 : 041-641-9330>